

11월의 안테나

노 영 한

(본지 편집국장)

월간양계 창간 12주년

월간 양계가 이번 11월호로 창간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월간 양계를 만드는데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여 주신 많은 분들의 힘이 모아져 이루어진 것입니다.

월간 양계의 편집 기획을 맡아 주시는 편집위원, 직접 글을 써주시는 필자, 광고를 내주시는 스폰서, 인쇄, 제본소, 용지를 공급하는 제지회사, 이들을 유기적으로 묶어나가는 직원들의 땀이 뭉쳐 월간 양계는 발간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간 양계는 역할도 창간당시와는 12년이 지난 동안 많이 변한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양계산업 발전의 길잡이가 되

고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여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큰 사명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양계업계의 발전은 눈부신 바 있습니다. 특히 규모의 발전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업계를 바다를 향해하는 하나의 배로 생각한다면 12년 전에는 작은 돛단배로 시작해서 지금은 몇만톤 급의 대형 선박이 되었습니다.

돛단배 시절에는 한사람의 경험이 풍부한 사공에 의하여 바람만 때맞춰 불어주면 배는 손살같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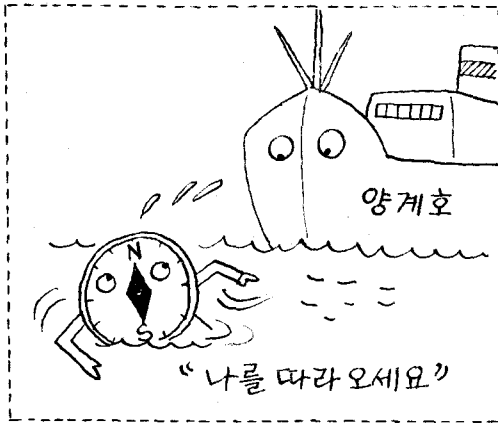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는 배가 너무도 커졌습니다. 선장이 필요하고, 통신, 무선사가 필요한가 하면 기관을 움직이는 기계기술자도 필요합니다.

과거 돛단배의 사공은 선장이 되기 위하여 바다의 생리를 알아야 되고 자기 다른 잡다한 승무원들을 통솔해야 합니다.

더구나 배가 목적지에 바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배가 가는 길이 표시된 지도와 그대로 찾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의 그 크기는 배에 비해서 너무도 작지만 배가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주는 실제적으로 배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양계는 우리 양계업계의 나침반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제



속되어 질것입니다. 나침판이 올바른 그 역할을 다하면 배를 운행하는 것은 선장의 책임입니다. 나침판이 선장의 하는일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이 고장이 나면 오히려 없는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배가 크면 클 수록 나침판의 역할이 중요하며 나침판의 고장은 더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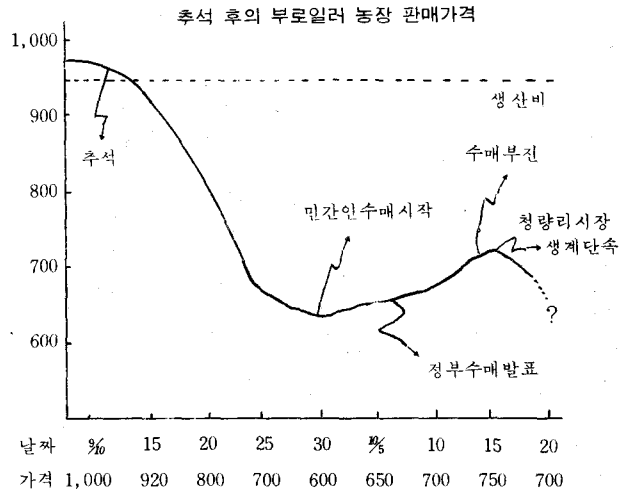
이렇게 중요한 나침판의 역할을 월간 양계는 앞으로도 계속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 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올바른 의견을 종합해서 배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길잡이의 역할만을 충실히 할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찍질 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로일러 업계의 불황 심화

추석이 지나고 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부로일러 가격은 한때 지역에 따라 농가판매 가격이 kg

당 550원까지도 하락 하였었다. 그러나 업계 자체의 비축과 정부의 축협을 통한 수매비축 계획 발표로 회복되는 듯 하던 부로일러 가격이 이제는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간지에도 보도되는 바와같이 시중 자금사정이 나빠서 연말까지는 소비증가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앞으로 다가올 11월은 우리나라 특유의 김장철로 매년 소비가 위축되어 온 비 수요기라서 소비가 더욱 안될 것은 뻔한 일이다.

배합사료 생산판매량을 보아도 9월 잠정집계는 총 53,800여톤으로 (월별 육계 생산량은 본지 후미에 있음) 이것 역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모든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말에는 일부지역에서 3kg를 넘는 큰 닭들을 기르는 웃지 못할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은 2kg가 넘는 부로일러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제 생산자의 희망은 정부의 수매비축 밖에 없게 되었다.

부로일러 수매비축은 불황을 해결하는, 그러나 아주 해결하여 주지는 않는 유일한 생산자의 위안처인가?

정부도 양축가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고자

81. 10. 5일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비축사업을 실시토록 지시 하였고, 이 사실이 각신문, T.V에 보도되자 닭 값은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실제 비축이 시작되는 10일이 되어 비축이 부진하자 생산자들은 실망하기 시작하였고 비축하면 이제 까지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만 생각하던 상인들도 이번 비축은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15일부터 다시 가격을 하락시키기 시작하였고 19일부터 청량리 시장을 위주로 서울시에서 생계단속이 실시되자 드디어 700원선이 무너져 650원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번 비축이 부진한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회원조합들이 비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군납사업을 하는 조합들은 기히 필요량을 비축하였으며 중앙회에 비축자금을 용자받아 소정의 금리를 부담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외에는 손실을 조합이 부담하여야(이익이 발생할 때도 같다) 하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조합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선뜻 비축에 응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부로일러의 불황은 노폐계의 처리마저 안되게 만들고 종란으로 쓰일 것이 식탄으로 처분되어 계란값 하락을 도와주고 사료업체, 동물약품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업계 전체를 침울하게 만들고 만다. 이제 현재의 어려움을 우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비축이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법이 아닌, 과거의 방법으로 되돌아 가는 길 밖에 없다. 하루속히 불황이 끝나도록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비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두번째 해결방안으로는 당초 축협중앙회가 계획 한대로 육류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닭고기, 돼지고기의 소비홍보 계획을 실행하는데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매년 연례행사로 불황을 당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많은 방안이 논의되어 이제는 업계의 의견도 모아졌으니 다만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있다.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선진 양



계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이제 더이상 현재 체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양계 안정기금의 설치나 생산 공급의 조절 소비홍보 등 할일이 많이 있으며 위험 부담을 생산자 혼자 부담하는 체제에서 탈피하여 부화장, 사료공장, 처리가공장 등 관련 모든 산업이 분담하여 부로일러 산업을 안정시켜 이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1981년 9월 후반기 부터의 불황이 우리나라에 부로일러 계열생산 체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양계사에 기록되어 지기를 바란다.